

개인보고서

수강과목 mjc 학습동아리 1주차

선택학과 경영학과

전 공 정보통신공학과

학 년 1학년

학 번 2021261050

이 름 이세중

작성일자 2021.10.04





경영 · 사회학부

MANAGEMENT · SOCIOLOGY DEPARTMENT

경영학과 >

세무회계과 >

부동산경영과 >

사회복지과 >

행정과 >

공공행정서비스상담과 >

외환위기(currency crisis)란 어떤 국가의 중앙은행에 해당 국가의 고정환율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외환보유고가 없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

[외환 위기가 일어나기 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상황]

먼저, 외환 위기가 일어나기 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단군 이래 최대 호황기” 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겉은 화려할지 몰라도 속은 그러하지 못했다. 급격한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였고 수많은 기업들은 은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은 빌린 자금을 통해서 문어발식 기업 경영을 실시하였다.

당시에 돈을 빌린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이러한 문어발식 기업 경영의 형태를 그대로 방치해버렸고 기업들은 무분별하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동시에 많은 부채를 가지기 시작했다.

결국,

[외환 위기가 일어난 후 우리나라의 상황]

[부제: 대마불사(大馬不死)의 몰락]

대한민국의 외환 위기의 첫 신호탄은 동남아시아에서의 부유한 나라였던 태국에서 시작되었다. 태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는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결국,

대한민국에도 그 영향이 미쳤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빗 돌려막기 식의 경제 발전이었고, 이러한 형태의 자본의 흐름은 외환 위기가 일어나자 연쇄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자 원화의 가치는 점점 낮아졌고, 당시 정부에서는 환율방어를 위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였지만 역부족이었다.

문어발식 경영을 하던 국내의 기업들은 더이상 돈을 빌려올 곳이 없어져 돈의 흐름이 막히게 되었고 막대한 양의 부채를 갚지 못하고 부도났다.

또한, 이것은 비단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여러 기업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돈을 회수하지 못해 부도나기도 했으며 여러 기업들의 부도 및 파산 등으로 실업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와 더불어 이혼율도 증가하였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석유를 수입하는데 달러의 값이 올라 사회 전반적인 물가도 같이 올랐다. (인플레이션)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및 후유증]

환율 방어에 실패한 정부는 외환 보유고의 달러가 부족해지자 **국제 통화 기구(IMF)**에 도움을 요청했고 IMF에서 19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아 숨통이 트였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

IMF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은 IMF의 요구조건대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외국인의 투자 자율화 정책, 기업들의 구조조정(대기업을 각 기업으로 독립시키는 구조조정 단행), IT 육성정책, 신용카드 정책, 정리해고제 등을 도입하였고 이런 정책들로 인해 소비, 건설, 설비, 실업, 임금, 물가와 금리 등 여러 부분에서 부작용이 나타났다.

부작용의 대표적인 예로는 부실기업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까지 흑자도산등으로 박살내버리고 대기업들의 연이은 부도사태에 따른 고용불안과 실질임금 증가세 둔화, 주식가격의 폭락 등으로 소비는 뚜렷하게 둔화되는 부작용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들이 잘 아는 또는 많이 들어본 운동인 금 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3년 8개월 만에 모든 차관을 상환하였다.

현재 2021년, 과거 2001년도에 모든 차관을 상환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수의 노숙자와 실업자의 수, 낮은 임금상승률 등 당시 외환 위기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고 사회에 남아있다.

결론

한 번 무너진 경제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많은 부작용을 낳고 그 부작용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투자 경영은 오래 지속되기 힘들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 이와 같은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주시해야 한다.

공학도로서 가져야 할 자세는?

: 대한민국의 외환 위기 사건을 알아보면서 무분별한 시장의 개방과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해 미래에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미래를 생각하며 시장의 개방과 확장을 염두해서 미래에 닥칠 문제점을 미리 생각하여 보완하는 것이 공학도로서 가져야 할 자세이다.

경영이나 경제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현재 배우고 있는 인터넷 같은 경우도 무분별하게 보급이 되면서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는 이 상황을 대비한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들어두어야 한다.